

내년 5·18 40주년 때 '방탄소년단' 초청 나선다

노랫말에 5·18 담아 글로벌 팬들 광주 순례 열풍 이끌어내 팬들 영문 번역 각종 커뮤니티 게재...5·18 관심 지구촌 확산 5월단체, 밥 딜런도 초청 논의...5월정신 세계화 도약 기대

5월 단체들이 불혹을 맞은 내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에 글로벌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을 초청하기로 해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40주년을 기점으로 5·18의 세계화·축제화에 나선 5월 단체들은 노랫말에 5·18을 담아 전 세계 팬의 '5·18국립묘지 순례 열풍을 이끌어 낸 BTS를 초청해 아픔과 고통의 5·18을 세계인의 행사로 승화해 나갈 것이다.

19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5월 단체들은 최근 40주년 기념행사를 논의하는 회의를 열고 방탄소년단의 기념콘서트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이는 광주시가 지난달 28일 방탄소년단

이 출연한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기원 슈퍼콘서트'를 개최해 오는 7월 열릴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을 증폭시킨 점에 주목, 5·18 40주년 기념행사 때 '방탄소년단'과 평화·자유·반전의 음유시인으로 불리는 미국가수 '밥 딜런(노벨 문학상 수상자)' 등을 초청하는 방안이 나온 것이다.

회의에 참석했던 5월 단체 관계자는 "세계 평화와 민주화 등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방탄소년단과 밥 딜런을 초청하면 5·18 정신의 세계화 도약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TS는 자신들의 노래 '마 시티'(Ma City)에 5·18을 언급해 5·18민주화운동을



지난 18일 '작은 것들을 위한 시'(Boy With Luv)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3억뷰를 돌파하면서 세계 최고 아이돌 그룹임을 입증한 방탄소년단. /연합뉴스

공부하는 외국인 아미(ARMY·방탄소년단 팬클럽)들이 증가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일부 '아미'들은 자체적으로 5·18에 대한 역사적인 내용을 사진·영상 등과 함께 영문판으로 제작한 뒤 팬 카페 등 인터넷 상에 올려 세계 팬의 관심을 이끌어 내고

있다.

지난 2015년 발매된 방탄소년단의 앨범 '화양연화 pt.2'에 수록된 '마 시티'는 광주 출신 멤버인 제이홉(본명 정호석·25)이 자신의 랩 파트에 "나 전라남도 광주 베이비(baby)" "내 광주 호시기도 전국 팔도는 기어. 날 불라면 시간은 7시 모여 집합.

모두 다 놀라라 062-518"이라는 가사를 썼다.

팬들은 062는 광주의 지역 번호, 518은 광주 민주화운동을 가리키는 의미로 해석했다. '7시 모여 집합'은 극우 커뮤니티가 광주를 비하할 때 쓰는 표현인 7시(지도상 위치)를 저격한 것이다.

이런 사실이 지난달 방탄소년단이 출연한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기원 슈퍼콘서트'를 계기로 알려지면서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는 국내 팬은 물론 일부 외국팬의 발길도 부쩍 늘었다.

당시 해당 콘서트를 보기 위해 광주를 찾았던 전북대학교 교환학생인 한나(여·25·베트남)씨와 갈리나 오스타펜코(여·23·우크라이나)씨, 조토바 나스자(여·20·우크라이나)씨, 구원계예바디아나(여·20·카자흐스탄)씨 일행도 공연 관람에 앞서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헌화·분향하며

오월 영령들을 위로<광주일보 2019년 4월 26일자 6면>했다.

이 기사는 BTS팬들에 의해 영문으로 번역돼 각종 커뮤니티 등에 게재, 5·18에 대한 관심이 전세계로 확산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지난달 30일 광주일보 독자 게시판에도 "BTS 팬들 5·18묘지 참배 기사 잘 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팬들은 해당 글을 통해 "마시티 가사 때문에 5·18을 알게 되었다는 아미의 이야기들이 인상 깊었다"며 "5·18 묘지를 찾는 '개념편' 내용의 기사를 SNS상(트위터·https://twitter.com/Jhope_Vibes/status/1123014886353788928?s=19)에 영문으로 번역해 공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예산이 확보되고 방탄소년단의 일정이 맞아떨어지겠지만, 노력을 한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김홍희 기자 kimyh@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그날 그 뜻 잇자' 5·18 전야제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 앞 분수대 주변에서 지난 17일 5·18 민주화운동 제39주년 전야제가 열리고 있다. /최한배 기자choi@kwangju.co.kr

완도 조약도 해상서 실종 70대 숨진 채 발견

완도 해상에서 실종됐던 70대가 사고 해역 인근 해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9일 완도해경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2시 15분께 완도군 완도읍 조약도 인근 해안가에서 실종됐던 차모(77)씨가 수색을 받던 마을 사람들에게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차씨는 지난 17일 오후 7시 40분께

선박 M호(1t, 연안복합)를 타고 나갔다가 조약도 인근에서 배만 발견된 채 실종됐다.

완도해경은 경비정과 구조정, 90여명의 인원을 동원해 사고 해역을 중심으로 해상과 육상 주변에 집중 수색을 벌였다. 완도해경은 사고 경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해남서 길 건너던 50대 뺑소니차 2차 사고로 숨져

해남에서 도로를 건너던 50대가 1차 사고를 당한 뒤 뒤따르던 뺑소니 차량에 치여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해남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밤 9시 40분께 해남의 한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A(54)씨가 B(50)씨가 운전하던 차량에 치였다.

이어 도로에 넘어진 A씨를 옆 차에서 진행 중이던 차량이 다시 치고 그대로 달아났다. 이 사고로 A씨가 숨졌다.

경찰은 2차 사고를 내고 달아난 차량을 추적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식당 앞 묶여 있던 진돗개에게 목줄짓 한 20대 취객

○식당 앞에 묶여 있던 진돗개를 상대로 음란 행위를 한 20대가 경찰서행.

○19일 경기가전경찰에 따르면 공연업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일용직 노동자 A(27)씨는 지난 17일 새벽 0시20분께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한 식당 앞에서 목줄에 묶여 있던 진돗개 위로 올라타 하의를 내리고 신체

특정부위를 밀착하는 등 음란행위를 했다는 것.

○A씨는 주민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됐는데, 경찰 관계자는 "식당 주인이 기르는 생후 3개월 된 진돗개가 피해를 당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면서 "A씨는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mskim@연합뉴스

난치병 형제의 비극...형 숨지고, 투신한 동생 치료 중

같은 희귀 난치병을 앓던 형제 중 형은 숨지고 동생은 투신한 사건의 형제가 가족에게 남긴 유서가 발견됐다.

19일 남원경찰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7시 10분께 남원시의 한 아파트 13층 발코니에서 A(47)씨가 뛰어내렸다. A씨의 투신 시도를 목격한 주민은 119에 신고했고, A씨는 소방당국이 설치한 에어매트 위로 떨어졌다. A씨는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거실에서는 A씨 형(51)이 이불

에 덮여 숨진 채 발견됐다. 형제는 "이런 선택이 최선인 것 같다. 가족을 사랑한다. 용서해 달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조사결과 이들은 같은 난치병을 앓고 있으며 형은 말기, A씨는 3기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은 함께 살던 노부모가 타지로 간 사이에 벌어졌다.

A씨는 사건 직전 가족에게 "너무 아파하는 형을 안락사시키고 나도 죽겠다"고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신안 리조트 식당서 해산물 먹은 16명 식중독 증상

보건당국 역학조사

신안군 모 리조트 식당에서 해산물을 먹은 16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여 보건당국이 조사에 들어갔다.

19일 신안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10분께 구토와 복통 증상을 호소하는 투숙객 신고가 경찰과 소방당국에 접수됐다.

이들은 지난 18일 오후 7시 30분께 신안 유명 리조트 안에 있는 식당에서 모듬회와 흥어삼합 등이 포함된 해산물을 먹었다.

이곳에서 식사를 한 9개 팀 35명 가운데 5개 팀 16명이 복통과 구토, 설사 등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나머지 19명은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

신안군은 해당 식당에서 식자재와 조리기구 등을 수거해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하기로 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보건환경연구원 분석 결과가 나와야 식중독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다"며 "분석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한국형 연금 발전소 분양

(태양)

A 타입 식용달팽이 사육장(건물위)가중치 1.5배
100KW 월 270만원 예상(+1층 농장 임대비)

B 타입 미래형 100KW 550만원(예상) **최단 2년6개월**
현금투자대비(년 40% 수익가능) **자금회수가능**

정부지원 농·어촌 태양광 사업안내

산업통상자원부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 가능**

에너지관리공단 **80% 용자지원사업 / 선착순 접수**

농협 **2018. 5. 1. 대통령령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전·답 가능)**

모듈·LG·한화큐셀(단결정)
인버터·ABB(이태리)·카고(독일)

100년 기업
정직·신뢰
(주)해가온개발

분양지역

- 경기도 안성시 잔여분 2기
- 영암 신북면 잔여분 5기 (선로 대기중)
- 영광 흥농 잔여분 3기

2019년 8~10월 준공예정



- 한전과 20년 장기 계약 안정적 투자
- 99KW설치시 연금처럼 월250만원 꼬박꼬박 (25년동안 년평균 3,000만원)

부지 매입합니다(전·답가능)

- 실제 농·어업인에 한함(축산업 종사자 우선접수 합니다)
-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 있으신 분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지!



전국대표 ☎ 1588-1543 · 010-3645-1479